

대선주자·지역 국회의원 지지·연대 움직임 본격화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당내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와 물 밑 연대를 모색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원혜영 의원을 필두로 최재천, 민병두, 배기운, 김영록, 김승남 의원 등 1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유을 하고 다양한 대선 후보군 가운데 김두관 경남지사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지사는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왔고, 양극화 극복과 경제 정의라는 시대전선을 온몸으로 실천해왔으며, 소통과 통합의 지도력을 보이고 섬김의 정치를 실행했다”며 “김두관 지사가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면 국민은 희망의 새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마 촉구와 지지를 천명했다.

이날 김두관 경남지사 지지 선언에는 배기운, 김영록, 김승남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3명이 참여, 눈길을 끌었다. 김영록 의원은 “김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역량이 있고 농어민과 서민을 생각하는 점도 남달라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으며, 배기운 의원은 “김 지사가 출마하면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더욱 역동있게 치러질 것

◇ 광주·전남 의원들 지지성향

- ▶김두관 ... 배기운·김영록·김승남
- ▶손학규 ... 이낙연·김동철·김성곤
- ▶정세균 ... 강기정·임내현
- ▶정동영 ... 주승용·우윤근
- ▶문재인 ... 장병완·이용섭

박지원·박해자·이윤석 등은 중립
일부는 안철수 원장에 절대기 나사

이라는 판단 아래, 지지하게 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김두관 지사 출마 촉구 및 지지 선언에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대선 정국이 본격화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선 주자들의 물밑 연대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전체적인 경선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연대 및 지지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친소 여부 등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친손학규 측으로는 이낙연, 김동철, 김성곤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친 정세균 그룹에는 강기정, 임내현 의원이 꼽히고 있고, 친 정동영 진

영으로는 주승용, 우윤근 의원이 거론된다.

친 문재인 그룹으로는 참여정부 장관 출신인 장병완, 이용섭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과 박해자, 이윤석 의원 등은 중립 성향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대선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측면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는 당밖의 안철수 원장과의 관계 설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복수의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양다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선 주자들과의 연대가 일부를 제외하고 느슨한 형국이어서 대선 구도 형성에 따라 지지 및 연대 방점식의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경선 방법이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광주·전남지역 표심이 전체적인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따라서 대선 주자들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새 지도부 “정권교체” 민주당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새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교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대선 출마선언 러시

조경태 출사표 ... 박준영 전남지사·김영환 의원 등 잇따를 듯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출마선언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기존의 대권 주자 이외에도 도전에 나서는 당내 인사들이 속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와 치열한 경선이 이뤄질수록 국민적 흥행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부산의 3선 조경태 의원이 11일 당내의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엄숙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통령이 되고자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충북의 4선 김영환 의원도 ‘중부권 후보 필승론’을 기치로 대선 출마 선언

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호남 민심의 지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이었던 박영선, 이인영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표와 최고위원의 경우, 대선일 1년 전에 사퇴해야 출마할 수 있도록 된 규정에 걸려 있다. 당규 개정문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론도 만만

치 않아 이들의 대선 출마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대선 주자는 적게는 7명, 많게는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대선 출마 러시 배경에는 경선을 통한 대중적 인지도 제고의 장점과 경선에서 패배해도 대선 주자급의 정치적 위상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대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선 시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당내에서는 9월 초중순이나 8월 말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경선을 8월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신임 지도부

13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3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12월 대선 승리로 정권 창출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여수를 방문, 엑스포 현장을 둘러보고 상경할 예정이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 저녁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지도부 朴心만 살피”

김문수 경기지사 “광주에 글로벌 대기업 유치”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당 지도부가 다른 대선 후보들과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보이지 않는 ‘박심’(朴心) 살피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박근혜 사랑화문’을 제기하며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김 지사는 또 “당내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선 선거인단 확대 절충안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선틀이 바뀌지 않을 경우 경선에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1인 체제, 박근혜 사랑화가 되고 있다”며 “박 전 위원장이 4·11 총선 공



천과 당 조직개편에 전권을 휘둘렀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완전국민경선을 하자는 것은 선거문화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것인데도, 오만하고 수구적인 당 지도부가 이를 외면하고 추대론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친박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인단 확대 등의 경선 절충안과 관련해 “선거인단을 늘리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심에 맞고 시대 개혁에 맞는 경선규칙을 받아들일 때 박 전 비대위원장님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박 전 위원장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지역 경제와 관련해, “광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산업만으로 약하고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 중소기업이 따라오고 연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전남은 서해안시대를 맞아 서해안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임기 동안 3할 자치로 확실히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국민들이 어찌 보든말든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2-1095호(2012.6.7)

보험은 사랑입니다



안정적인 공시이율에
연금의 복리 효과로
만족을 더했습니다
(공시이율: 변동금리)

**삼성생명
연금보험**

적극적 수익 추구에
기납입보험료 100% 최저보증으로
안심을 더했습니다
(연금 개시시까지 유지시)

**Top클래스
변액연금보험**

바로 다음 달부터 나오는 연금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으로
노년의 여유를 더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시)

**파워즉시
연금보험**

어떤 연금을 생각하시든 선택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다양한 연금상품, 필요에 따라 선택하세요]

삼성생명 연금보험

- 공시이율(변동금리)로 안정적 수익 추구
- 추가납입, 중도인출 등 유연한 자금 운용 가능

삼성생명 Top클래스 변액연금보험

- 다양한 펀드에 투자해 적극적 수익 추구
- 기납입보험료 100% 최저보증 (연금 개시시까지 유지시)

삼성생명 파워즉시 연금보험

- 단 한 번 목돈으로 가입 한달 후부터 바로 연금 지급
-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op클래스변액연금보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특약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보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 등이 특별 계약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변액보험은 운용 결과에 따라 납입연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최저연금지급금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으로 年 0.57%(1종), 年 0.77%(2종)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으로 차감합니다. **[삼성생명 연금보험/파워즉시연금보험]** : ※이 보험계약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보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1588-3114 http://www.samsunglife.com

